

초기 청소년의 오픈채팅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낯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김세진 인천신정초등학교 교사

* 이 논문은 제81회 국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2024.4.20.)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연구의 필요성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결론

I.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에게 디지털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관계 확장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 맺기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얼굴을 마주한 적 없는 이들과 감정을 주고받고, 자기 서사를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방식은 오늘날 청소년이 경험하는 새로운 관계 형성의 양상을 잘 보여준다(Lomanowska & Guitton, 2016). 이러한 경향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보장된 플랫폼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은 닉네임 기반의 참여 구조와 관심사 중심의 연결 방식을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김세진, 2024).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근영·임지연, 2021)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19.6%의 청소년이 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으며, 특히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 즉 초기 청소년의 이용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카카오톡 오픈채팅탭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약 1,200만 명에 달하며(김대영, 2024.05.24.), 이는 전체 이용자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오픈채팅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 청소년의 일상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초기 청소년기(11~13세)는 자율성과 소속 욕구가 커지고, 또래 관계 변화, 정체성 탐색, 학업 부담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전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소수연·안지영·양대희·김경민, 2014). 이 시기의 청소년은 낯선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호기심과 소속 욕구를 디지털 내에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오픈채팅과 같은 플랫폼에 자연스럽게 끌리는 배경이 된다.

여기서 ‘낯선 사람’이란 실명이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면식 없이 만난 이들을 의미하며, 이들과의 관계는 단발적일 수도 지속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초기 청소년은 오픈채팅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고 있다(김세진, 2024).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이들이 온라인 관계를 통해 사회적 의미와 감정적 유대를 구성해 나가는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초기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위험 중심 시각에 머물러 있다(이재영·김용근, 2019; 장근영·임지연, 2021; 한정석, 2023). 특히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오픈채팅은 디지털 성범죄의 통로로 지목되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중심의 대응이 강화된 바 있다. 최근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초등학생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 사례(이디숨, 2025.03.31)는 오픈채팅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간으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위험 중심의 담론은 청소년을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규정하며, 이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관계 경험과 사회적 실천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단지 위험에 노출된 존재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를 탐색하는 능동적 주체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성장한 이들은 온라인 공간을 삶의 일부로 인식하며, 그 안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적극적 경향을 보인

다(Prensky, 2001; 김아람·김아미, 2020). 이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다는 단순한 특성을 넘어, 디지털 공간이 청소년 발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장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오픈채팅을 통해 낯선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당사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이 실제로 인식하거나 경험하는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위험 중심 담론과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초기 청소년은 어떤 계기와 목적에서 오픈채팅을 이용하게 되는가?

둘째, 이들은 낯선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정서적·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가?

셋째,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인식하는 위험과 가능성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거나 대응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오픈채팅 경험을 ‘가능성’과 ‘위험’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다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며,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온라인 관계 맺기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균형 잡힌 사회적 대응과 교육적 실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온라인 상호작용의 익명성

온라인 상호작용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익명성(anonymity)’이다. 익

명성은 사용자의 신원을 감춤으로써 보다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현실과 다른 자아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Baym, 2010; Ellison, Blackwell, Lampe, & Trieu, 2016). 이러한 특성은 초기 청소년에게도 크게 작용하는데, 익명성을 통해 현실에서는 쉽게 드러내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상황에 따라 이러한 익명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llison, Blackwell, Lampe & Trieu(2016)은 이를 ‘전략적 익명성(strategic anonymity)’이라고 개념화하며, 청소년들이 익명 기반 플랫폼인 ‘ask’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성장시키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해당 연구의 참여자들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메시지가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져 민감한 질문이나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학교에서 금기시되는 주제도 우회하여 소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성은 이미지 관리나 낮은 사람과의 관계 형성 통로로도 활용되었다(Ellison et al., 2016). 예컨대 친구들이 생일을 잊자 한 청소년은 제3자인 척하며 자신에게 익명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 친구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일부는 익명의 호감 표현을 통해 온라인 관계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적 익명성’은 초기 청소년이 감정 표현, 관계 탐색, 정체성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촉진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익명성을 부정적으로 조명한 연구들도 적지 않다(Lapidot-Lefler & Barak, 2012; 이수봉·한상철, 2018; 이재영·김용근, 2019). Lapidot-Lefler와 Barak(2012)는 익명성, 눈맞춤 결여, 비가시성이 결합될 때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수봉과 한상철(2018)은 감각 추구 성향과 또래 동조성이 높은 청소년이 익명 환경에서 사이버불링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영과 김용근(2019)은 익명성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며, 익명성이 신뢰 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 자체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처럼 익명성은 초기 청소년에게 정체성 실험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을 높이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익명성을 통해 관계를 맺고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는 익명성이 관계 형성, 자기 노출, 위험 조절의 전략적 자원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오픈채팅에서의 청소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 온라인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

청소년기는 정서적 친밀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대인관계는 정체성과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Reis & Shaver, 1988). 최근 이러한 관계 형성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디지털에서의 친밀감 형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우성범·권정혜·양은주, 2014; 남순현, 2015; Jangra, De, Sastry, & Tyson, 2025).

친밀감에 관한 주요 이론 중 하나인 Reis와 Shaver(1988)의 친밀감 이론에 따르면, 친밀감은 개인의 자기개방(self-disclosure)과 상대방의 반응성(responsiveness)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이다. 이 구조는 온라인 맥락에서도 유의미하게 작동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친밀감 역시 자기개방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감적인 반응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Baym(2010) 역시 온라인 소통이 자기개방과 신뢰 형성 그리고 공유된 경험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며, 온라인 관계가 지속성과 깊이를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우성범 외(2014)는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6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친밀감 형성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에서는 자기개방 자체보다도 상대방의 즉각적이고 공감적인 반응성이 친밀감 형성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오픈채팅에서 청소년들이 빠른 반응을 주는 상대를 선호하는 경향과도 맞아
아 있다.

Lomanowska와 Guitton(2016) 역시 자기개방과 정서적 교류를 온라인 친밀감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자존감 향상이나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과도한 자기노출이나 부적절한 정보 공유로 인한 위험성도 함께 경고하였다. 이처럼 익명성과 친밀감은 양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Haq 등(2025)은 200만 건 이상의 Reddit 데이터를 분석하여, 온라인 자기개방이 단일 정보가 아니라 나이, 성별, 위치 등 여러 단서를 복합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조합은 반응을 유도하며 커뮤니티 규범 속에서 지속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채팅에서 청소년들이 “14살, 인천”과 같은 정보를 통해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전략과 맞아
아 있다.

남순현(2015)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활발히 자기개방을 할수록 가족 친밀감과 친구 관계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종단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기개방을 단순한 위험 요소가 아닌 관계 형성의 촉진 요인으로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이 오픈채팅을 통해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3. 초기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 특성

초기 청소년(11~13세)의 오픈채팅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정책적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둘러싼 기존 담론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성범죄의 위험성과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전개되어 왔다.

이재영과 김용근(2019)은 성인 가해자가 오픈채팅을 통해 청소년과 심

리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성적 착취로 이어가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이들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만난 타인에게 오프라인보다 쉽게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익명성과 감정적 의존이 결합될 경우 피해 인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되는 청소년의 정서적 상호작용과 친밀감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한정석(2023)은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오픈채팅 이용의 심리적 요인이 청소년의 성비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 경험 이 많고 긍정적 태도를 지닌 청소년일수록 성비행 의도가 높았으며, 충동성, 모험 추구, 낮은 자기통제력, 내현적 자기에 성향 등이 그 매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또래 압력에 취약할수록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위험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은 정체성 수행과 사회적 승인 욕구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심리·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위험 중심 담론은 언론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된다.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2024~2025) 분석에 따르면, ‘오픈채팅’과 청소년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336건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는 ‘성범죄’, ‘성폭행’, ‘룸카페’, ‘미성년자’, ‘SNS’, ‘성관계’ 등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기사들은 오픈채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편향적으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김대영, 2024.02.10.; 이현주, 2025.04.10.).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들이 오픈채팅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적 교류나 흥미 기반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충분히 조망하지 못한다. 메조미디어(2024)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에서 오픈채팅은 공통 관심사 기반의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10대 응답자의 주요 참여 주제로는 ‘게임’, ‘특정 주제가 없는 수다’, ‘연예인’, ‘공부/학업’, ‘영화/예능’ 등이었다(이정현, 2024.04.30.). 이는 오픈채팅이 단순한 일탈의 공간이

아니라, 흥미 기반의 사회적 연결과 자기표현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목적의 다층성은 초기 청소년의 오픈채팅 경험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본 연구의 질적 접근이 지닌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김세진(2024)은 오픈채팅을 청소년의 정서적 교류와 관계 형성의 장으로 조망하면서도, 위험과 보호 경험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채팅을 균형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위험성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실천 공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기존의 규제 접근에서 확장해 초기 청소년이 오픈채팅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상호작용, 위험 인식, 정체성 수행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들의 주체적 경험과 사회적 의미 구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채팅을 활발히 이용한 초기 청소년(11~13세)’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총 6명의 초기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5명은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김세진, 2024)에 참여했던 학생들로, 202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이들은 ‘① 채팅 이용 경험이 풍부하며, ②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전 설문과 수업 연계 활동을 기반으로 한 2단계 표집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다.

2023년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 전원이 오픈채팅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해당 면담 자료는 2025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오픈채팅 경험을 중심으로 재코딩되었고, 관계 형성, 정서적 상호작용, 위험 인식 등의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2025년에는 기존 참여자 중 1명과, 그 학생의 추천을 통해 새롭게 참여하게 된 또래 청소년 1명을 대상으로 후속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동일 참여자의 연속 면담과 새로운 참여자의 비교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오픈채팅 이용 양상의 변화와 지속성을 조망하고, 초기 청소년의 디지털 경험이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2012년생으로, 2025년 기준 만 12~13세이며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에 속한다. 이들은 인천의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업 경쟁이 치열하고 보호자의 통제가 비교적 강한 교육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김세진, 202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지역이나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가명	성별	면담 당시 학년	면담 연도	이용 기간 (2025 기준)	주요 이용 주제
쌤민이	남	초5	2023	약 5년	게임, 학습
인간	남			약 4년	게임
유튜버	남			약 4년	게임
공주님	남			약 4년	게임, 소통
사과	여	초5 → 중1	2023, 2025	약 5년	소통, 게임
요거트	여	중1	2025	약 2년	소통, 게임

2.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은 면담을 중심으로 하되, 오픈채팅 비참여 관찰, 관련 사회적 담론 자료(뉴스, 커뮤니티 게시글 등)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자료 삼각측정(data triangulation) 전략을 적용하였다.

첫째, 초점집단면담(FGI)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3년(5명)과 2025년(2명),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2023년 면담에서는 온라인 채팅 전반에 대한 참여자의 자유로운 논의를 유도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와 시각 자료(마인드맵, 이미지 등)를 활용하였고, 채팅 경험과 이에 대한 인식 탐색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2025년 면담은 오픈채팅을 중심 주제로 삼아, 이용 양상의 변화, 관계 형성, 인식의 흐름 등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녹음 및 전사 후 참여자의 확인(member check)을 거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개된 오픈 채팅방을 직접 탐색하며 비참여 관찰을 수행하였다. ‘10, 20대’, ‘소통’, ‘아이브’, ‘로블록스’, ‘고민상담방’ 등 특정 키워드를 활용해 채팅방의 구조, 대화 흐름, 언어 사용 방식, 운영 규칙 등을 관찰하였으며, 인상과 분석적 단상은 연구자 저널(researcher diary)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이 탐색 활동은 개입 없이 이루어졌고, 채팅 내용은 저장하거나 인용하지 않았으며, 10대 채팅방 내 맥락을 이해하고 참여자 진술을 해석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셋째, 관련 기사 및 커뮤니티 글, 댓글 등 사회적 담론 자료를 수집하여, 참여자의 경험과 사회적 인식 간 교차점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의 7단계 현상학적 분석 절차(친숙화-중요진술 식별-의미 형성-주제 군집화-포괄적 기술-근본 구조 기술-참여자 검증)를 따랐다.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 Dedoose를 활용하여 전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코딩하고, 주제 및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김세진, 2024)의 범주를 참고하되, 추가 면담에서 나타난 새로운 맥락을 유연하게 반

영하여 해석의 개방성을 확보하였다. 해석의 편향을 줄이기 위해 반성적 메모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동일 분야 연구자와 교차 검토를 통해 비판적 피드백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부정적 사례 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통해 전체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별도로 검토하고, 그러한 예외 사례가 분석 결과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 진술을 구조화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참여 양상의 이해

1) 참여 계기: 추천 수용과 자발적 탐색

연구 참여자들이 오픈채팅의 존재를 인식하고 참여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유튜브, 현실 친구, 게임 커뮤니티 등 타인의 추천을 통해 접속하게 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카카오톡 기능을 탐색하던 중 오픈채팅을 우연히 발견하고 흥미를 느껴 참여하게 된 경우이다.

예컨대, 참여자 ‘사과’는 좋아하는 유튜브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공유한 채팅방 링크를 통해 오픈채팅에 처음 접속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현실 친구로부터 직접 채팅방 링크를 전달받고 참여한 경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참여자 ‘잼민이’와 ‘요거트’는 외부의 추천이 아닌, 카카오톡 플랫폼 탐색 과정에서 오픈채팅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과: 제가 좋아하던 유튜버가 자기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제 팬톡방이에요. 팬
분들 여기로 들어오세요.”하고 링크를 올렸어요.
잼민이: 카카오톡을 둘러보다가 오픈채팅을 발견했어요.

오픈채팅은 별도의 가입이나 인증 없이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낮다. 실제로 카카오톡은 2024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로 선정되었으며(한국언론진흥재단, 2024), 청소년 이용률도 95.3%로 매우 높다(2022). 이러한 보편적 접근성과 낮은 기술적 진입 장벽은 청소년들이 플랫폼 탐색 과정에서 오픈채팅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형성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초기 참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자발적인 검색과 지속적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특정 관심사에 따라 오픈채팅을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참여하면서, 자신만의 취향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다.

2) 이용 목적: 관심사 기반 소통, 정보 탐색, 정서적 교류

초기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오픈채팅에 진입한 이후, 점차 관심사 기반의 소통, 실시간 정보 탐색, 정서적 교류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채팅방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려는 사회적 동기를 기반으로 오픈채팅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 형성을 위한 자발적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Lomanowska & Guitton, 2016).

연구 참여자들이 채팅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주제는 ‘게임’과 ‘소통’이었으며, 이는 청소년 커뮤니케이션 주요 주제로 ‘게임, 수다, 연예인, 학업’이 상위권에 오른 조사 결과(이정현, 2024.04.30)와도 일치한다. 특히, 오픈채팅 내 게임 관련 채팅방은 단순한 공략 공유를 넘어서, 역할극, 더빙, 게임 음악 소비 등 하위 문화로 확장되었고, 참여자들은 이

를 창의적 자기표현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예컨대, ‘사과’는 오프라인에서 관심사를 공유할 친구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적 관계 형성의 공간으로 오픈채팅을 활용하며, 더빙 활동과 뮤직비디오 제작을 통해 진로에 대한 자각으로까지 연결되는 경험을 하였다.

사과: 제 주변에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공통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공통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좋아요. 또 채팅에서 사람들과 더빙하면서 노래 부르던 게 좋아서 꿈이 음악 쪽으로 갔어요. 소속사 같은 데에서 기획하는 사람 하고 싶어요.

또한, 오픈채팅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보 탐색 목적의 ‘비공식적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요거트’는 자신의 관심사였던 ‘보컬로이드’ 관련 앱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 관련 채팅방을 찾았고, ‘잼민이’는 게임 정보와 트렌드를 얻기 위해 채팅을 적극 활용했다. 한편, ‘인간’은 게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팀의 채팅방에 몰래 잠입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오픈채팅은 보다 즉각적이고 맥락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온라인 검색과 차별되는 실시간 상호작용적 특성을 보여준다.

잼민이: 비행기 게임 채팅방에선 궁금한 걸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줬어요. 인터넷에 안 나와 있는 신기한 사실들을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요.

요거트: 보컬로이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할 친구가 너무 없어서 오픈 채팅을 찾았어요.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이버, 유튜브에도 찾아봤는데, 거기선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받기가 어려웠어요.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기반으로 한 참여 양상은 미디어 석학 젠킨스(Jenkins, 2009)가 제시한 ‘참여 문화(participatory culture)’의 실천 양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젠킨스는 참여 문화를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낮

은 창작 진입 장벽, 비공식적 멘토링, 창작과 공유에 대한 사회적 지지, 의미 있는 자기 표현, 사회적 유대감의 형성이 가능한 문화적 실천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 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더빙, 뮤직비디오 제작 등 창작 활동은 물론, 실시간 정보 공유와 감정 교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디지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예컨대 ‘사과’는 창작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 진로 인식을 확장했으며, ‘요거트’와 ‘잼민이’는 실시간 질의응답과 감정 교류를 통해 비공식적 상호학습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 청소년이 오픈채팅을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닌, 자율적 학습과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참여 문화의 핵심 조건이 실제 실천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채팅방 선택 전략: 규모, 관심사, 자기 표현 가능성

초기 청소년들은 오픈채팅을 이용할 때, 단순히 임의의 채팅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표현 욕구에 적합한 채팅방을 전략적으로 선별하는 실천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채팅방 참여 인원 수, 관심사 일치 여부, 알고 있는 사람의 유무, 자기 표현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수많은 채팅방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능동적으로 탐색하였다.

특히 ‘참여 인원 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인원이 너무 많으면 대화 흐름이 산만해지고 개인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며, 반대로 너무 적으면 상호작용의 밀도가 부족해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사과’는 더빙(성우 연기) 활동을 위해 “사람이 많으면 경쟁자가 많고,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인공이 되기 어렵다”며 초보자 중심의 소규모 방을 선호했으며, ‘요거트’는 “170명 넘는 방은 너무 산만하고 폰도 느려진다”며, 대화가 원활한 30명 이하의 방을 선택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초기 청소년이 자신의 목적과 조건에 맞는 디지털 환경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주체적 실천자임을 보여준다. 채팅방

선택은 자기 표현 가능성과 상호작용의 질을 고려한 실천적 조율 과정으로, 이는 오픈채팅이 단순한 정보 소비 공간을 넘어 자기 주도적 소통과 관계 형성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이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소통 방식에 맞는 관계와 학습 환경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탐색과 조율 능력을 기르는 실천 중심의 미디어 교육이 요구된다.

2. 관계 형성과 변화

1) 낯선 사람과의 친밀감 형성: 자기개방과 반응성

오픈채팅은 익명의 낯선 이들과의 만남에서 출발하지만,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기도 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의 자기개방과 반응을 통해 낯선 이들과의 친밀감을 점차 쌓아가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대화를 넘어 자발적인 정서 교류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기엔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관계가 점차 진전되면서 반말 사용, 애칭 부여, 이름 공개, 전화번호 교환, 얼굴 공개 등 점진적 자기개방을 통해 신뢰를 형성했다. 예컨대 ‘요거트’는 “존댓말을 쓰다가 친해지면 ‘반모(반말 모드)’를 요청하고, 더 친하면 애칭을 사용한다”고 설명했고, ‘사과’는 상대와의 관계가 깊어지며 전화번호를 교환한 경험을 회상했다.

특히 또래 중심의 소통방에서는 학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교과서, 교복, 학습 플랫폼 화면을 공유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Ellison 등(2016)의 ‘전략적 익명성’ 개념 즉, 필요에 따라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드러내 관계를 조율하는 방식과도 연결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형성된 친밀감은 빠르고 공감적인 반응성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예컨대, ‘요거트’는 “현실 친구와 달리 채팅 사람들은 연락이 빠르다”고 말하며, 오픈채팅의 실시간성과 즉각적인 반응을 주요한 장점으로 언급했다. 채팅방은 실시간 반응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

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서는 자기개방 자체보다 상대방의 공감적 반응이 친밀감 형성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우성범 외(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자기개방과 반응성은 오픈채팅방의 상호작용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특히 채팅방의 주제나 목적에 따라 그 강도와 양상이 달라졌다. 연구자의 비참여 관찰에 따르면, 고민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 청소년 중심의 채팅방에서는 참여자들이 입장 직후 비교적 깊이 있는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었다. 이는 첫 만남부터 강도 높은 자기개방이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황으로, 채팅방의 목적이 이러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맥락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은 공감 어린 조언과 반응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정서적 유대를 빠르게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고민을 이야기 하던 참여자가 곧바로 다른 참여자의 고민에 응답하는 모습은 역할의 전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오픈채팅이 낯선 이들 간에도 신속한 정서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공간임을 보여준다.

일부 참여자는 관계가 깊어진 상대와 ‘우결(우리 결혼했어요)’ 놀이를 통해 가상 연애 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해당 관계는 동성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보다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참여자는 이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례는 초기 청소년이 오픈채팅이라는 공간을 활용해 감정적 유대를 놀이적으로 구성하고, 현실에서는 쉽게 시도하기 어려운 관계 형식을 실험해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연애 놀이가 항상 안전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혹여나 상대가 또래가 아닌 낯선 성인일 경우, 관계의 권력 불균형이나 성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관계 실천을 단순한 유희로 간주하거나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 경계, 의도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기반의 경험 중심 미디어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오픈채팅은 초기 청소년들이 익명성과 심리적 거리감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의 반응을 확인하며 감정적 유대를 형성해 가는 디지털 친밀감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Reis와 Shaver(1988)가 제시한 친밀감 형성 이론, 즉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적 유대 구축 과정과도 밀접하게 부합한다. 다만, 이러한 자기개방은 항상 신중한 판단과 윤리적 고려를 수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응은 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관계의 유동성과 전환: 유지, 단절, 재구성

오픈채팅에서의 관계는 빠르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게 단절되거나 변형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채팅을 통해 감정적 유대를 경험하면서도, 이를 고정된 관계로 간주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서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발달 단계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개인의 사회적 조건과 정서적 맥락, 연결망의 재구성 과정에서 관계의 성격이 유연하게 구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중학교에 진학한 ‘사과’와 ‘요거트’는 같은 발달 전환기를 맞이했음에도 관계 유지 양상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사과’는 중학생이 된 후 학업 증진을 위한 시간 늘어나면서 “쉬는 시간을 모르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깝다”며 참여를 줄인 반면, ‘요거트’는 “친구들이 다른 중학교로 흩어져 연락이 뜸해졌고, 채팅에서는 바로 답장이 와서 쉽터처럼 느껴졌다”고 말하며 채팅 이용을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대비는 동일한 생애 전환기 안에서도 관계 지속 여부가 개인의 감정 상태,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등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채팅 속 관계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종료되기도 했다. 참여자 ‘사과’는 오픈채팅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친구가 갑작스레 “엄마가 검사한다”며 방을 나간 뒤, 곧바로 ‘회색 사용자(연락 불가 상태)’로 표시된 경험을 회상하였다. 이후 남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가 ‘폐인이 되었

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 상황은 확인할 수 없었고 관계는 조용히 단절되었다.

사과: 결국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이 사례는 디지털 관계가 단절되는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채팅에서 형성된 감정적 친밀감은 때로 깊고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실명이나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익명 기반 구조에서는 일방적 이탈이나 기술적 차단이 곧 관계의 종료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단순히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과’는 “지금도 그 친구가 잘 지내는지 가끔 생각한다”며 여전히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고 밝혔고, 이는 온라인 관계가 실시간 상호작용이 끊긴 이후에도 개인의 내면에 정서적 흔적으로 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오픈채팅에서의 관계 형성과 전환은 선형적인 발달 과정이나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감정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며, 기술 구조와 개인의 실천이 맞물려 불확실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Baym(2010) 역시 디지털 소통이 새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불안정성, 사생활 침해 같은 취약성을 동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여자들의 경험은 이러한 양면성을 잘 보여주며, 친밀한 관계조차 정서적 맥락과 외부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하거나 단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이해는 다음 장의 위험 인식과 감정 조절 전략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토대가 된다.

3. 위험 인식과 대응 전략

1) 위험 인식의 계기: 경험, 관찰, 손실의 누적

오픈채팅은 청소년에게 낯선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성적 발언, 부정적 감정의 확산, 일대일 채팅을 통한 접근, 금전적 피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위험을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 사례를 관찰하며 점차 체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참여 방식 또한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한 참여자는 성인도 포함된 상담방에 입장한 직후 “남친의 절친과 자버렸는데 어떡하냐”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접해 큰 당혹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참여자는 해당 방을 이탈했으며, 이후에는 연령대가 명시된 10대 중심 채팅방만 이용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위험을 인식하고 이후의 참여 방식을 조정하게 된 전환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친구의 사례를 통해 위험을 간접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선물을 미끼로 번호를 요구하고 결국 해킹으로 이어졌다는 주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듣기만 해도 무섭다”고 말한 참여자는 이후 채팅 이용에 더욱 신중해졌다고 덧붙였다.

위험에 대한 체감은 반복된 플랫폼 이용 경험 속에서도 형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설정한 프로필 이미지에 따라 낯선 이에게 받는 메시지의 빈도와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예컨대, 여성 아동을 암시하는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낯선 이로부터 외모 언급이나 연애 관련 접근이 늘어났고, 남성 캐릭터나 중성적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접근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사과: 예쁜 거울샷을 하면 연락이 많이 오고, 남자로 해놓으면 잘 안 와요. 또 애니 캐릭터를 해놓으면은 성별을 추정하기도 어렵고 약간 ‘아 애는 오타

쿠라서 안 넘어올 것 같은데’ 하면서 안오더라고요.
요거트: 어쩐지, 애니 프사를 했더니 말을 자꾸 안 걸어 주더라고요.

이처럼 이들은 디지털 정체성을 구성하는 표현 방식이 자신의 위험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체감하며, 점차적으로 프로필 설정이나 대화 참여 방식에 변화를 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채팅 내 위험은 정서적 불쾌감을 넘어,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로도 나타났다. 참여자 ‘공주님’은 게임 관련 채팅방에서 낯선 이가 ‘게임 머니를 대신 충전해주겠다’며 접근하자, 이에 응해 기프트콘을 전송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받은 직후 채팅방을 이탈하며 금전적 사기 피해를 초래했다. 이와 유사한 피해는 초기 청소년 사이에서 빈번히 보고되었으며, 예컨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돈을 보낸 후, 불법적 경로로 충전된 게임 머니로 인해 계정이 삭제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채성오, 2023.01.09.). 이처럼 감정적 상처와 물리적 손실이 함께 수반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오픈채팅의 위험성을 더욱 실감나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2) 자기 보호 전략: 이탈, 조율, 개입

위험을 인식한 이후, 초기 청소년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들의 전략은 채팅방의 특성과 개인의 경험, 감정 상태에 따라 조율되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대응은 불쾌한 상황에서의 이탈 또는 대화의 일시적 중단이었다. 성적인 발언이나 무례한 언사가 접했을 때, 참여자들은 즉각적인 제재나 논쟁 개입보다는 조용히 채팅방을 이탈하거나 일정 기간 활동을 중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참여자 ‘사과’는 고민 상담을 위해 입장한 채팅방에서 성적인 발언을 접한 후 당혹감을 느꼈지만, 상대방을 신고하기보다는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어서 이 방에 왔을 것”이라며 조용히 그 방을 떠났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단순한 회피라기보다, 채팅방의 맥락과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적 거리를 스스로 조절한 실천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반복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을 조율하는 기술적 전략도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프사(프로필 사진), 닉네임, 상태 메시지 등을 수정하거나 알림을 차단하고 채팅을 선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에서의 자기 노출 방식을 조정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은 특정 프로필 사진이 외부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는 체감을 토대로 남성 캐릭터나 중성적 이미지를 활용해 접근 가능성을 조절하였다. 이는 Ellison et al.(2016)이 제시한 ‘전략적 익명성’ 개념과 맞닿아 있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정보 선택과 노출을 조절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천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일부 참여자들은 플랫폼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에 적극 개입하기도 했다. 예컨대 참여자 ‘인간’은 욕설, 도배, 악성 링크 등 문제 상황을 목격한 뒤 해당 사용자를 신고해 계정 정지를 유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신고가 실제로 적용돼서 기뻐다”고 회상했다. 이는 단순한 회피나 조율을 넘어 플랫폼 내 규범에 대해 판단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사용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초기 청소년은 상황에 따라 오픈채팅 내 위험을 구분하고 조율하며 때로는 적극 개입하는 다층적인 대응 전략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Lapidot-Lefler와 Barak(2012)가 지적한 ‘온라인 공간의 비가시성과 탈맥락성’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이들이 정서 조절과 상황 판단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 실천적 사용자로 재조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러한 대응이 부모나 사회적 시선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조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부모 및 사회 담론에 대한 정서적 협상

초기 청소년들은 부모가 오픈채팅 이용을 위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뚜렷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규제를 수용하거나 회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모의 인식과 자신의 디지털 실천 사이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성해 가고 있었다.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의 우려를 ‘과잉보호’로 인식하며,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이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요거트: 엄마는 오픈채팅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신상만 잘 지키면 문제없는 좋은 단톡방이라고 생각해요.
공주님: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좀 과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의 규제를 의식하여 이를 우회하거나 스스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예컨대, ‘요거트’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펜스’ 기능으로 채팅이 제한되자 “숙제하는 척 컴퓨터로 몰래 채팅을 했다”고 말하며 감시를 회피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반면 ‘사과’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전화번호나 위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사용을 허락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어긴 경험이 있으며, 이후에는 죄책감 때문에 위치 공개를 스스로 자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외적 규제를 넘어서, 부모의 발언이 ‘내면화된 감시’로 작동해 이들의 자기조절 행동을 유도하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참여자 ‘사과’의 사례는 동일한 인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의 반응과 자신의 실천 방식에서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오픈채팅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온 ‘사과’는, 첫 면담에서는 어머니의 강제 퇴장 조치로 인해 채팅방 친

구와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긴 경험을 떠올리며 “당시엔 정말 화가 났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후 면담에서는 어머니가 또래 구성과 채팅 주제를 확인한 뒤 “이제는 너도 컸으니 적당히 하라”며 사용을 허락해 준 경험을 언급하며, “정말 기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초기 청소년의 오픈채팅 경험이 고정된 특성이 아닌, 성장 과정 속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동적으로 형성되고 학습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특히 부모와의 협상을 통해 사용 권한을 회복한 경험이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규제와 실천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잘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발달적 맥락에서 탐색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한편, 부모의 개입이 느슨하거나 신뢰 기반으로 작동하는 가정에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참여자 ‘인간’은 “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잘할 거라 믿는다”고 말하며, 오픈채팅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스스로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간’은 또래에게 “욕하면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하며, 외적 통제 없이도 윤리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는 부모의 실제 인식이라기보다, 참여자가 자신의 실천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구성한 해석일 수 있다. 부모의 태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천은 남순현(2015)이 말한 ‘자기개방의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다. 그는 청소년의 온라인 표현이 개인 성향이 아니라 부모의 통제, 가족 소통, 사회 규범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참여자들도 부모의 기대와 감시에 따라 행동을 조율했으며, 일부는 협상을 통해 사용 권한을 회복하며 자기효능감을 경험했다. 이는 통제를 넘어 정서적 협상과 상호 학습을 통해 디지털 공간의 의미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11~13세)이 오픈채팅을 활용하여 낯선 사람과 관계를 맺고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며, 위험을 인식하고 조절해 나가는 디지털 실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혀냈다.

첫째, 초기 청소년은 오픈채팅에 우연히 유입된 뒤, 관심 기반의 소통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게임, 더빙,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목적을 바탕으로 실시간 감정 교류를 실천하며, 이는 Jenkins (2009)의 ‘참여 문화’ 개념과도 연결된다.

둘째, 낯선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친밀감 형성의 정서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초기 청소년은 자기개방과 반응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구축하고, 익명성과 자기노출 수준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며 또래와 신뢰를 확인하였다.

셋째, 초기 청소년은 오픈채팅에서의 위험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회피, 이탈, 신고, 자기노출 조절 등의 전략을 수행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수동적 피해자가 아닌 실천적 사용자로서 디지털 시민성을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오픈채팅 이용은 부모의 규제와 사회적 담론 속에서 조율되었으며, 일부는 이를 내면화하거나 기술적으로 회피했고, 일부는 협상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였다. 이는 디지털 자기표현이 가족과 사회 규범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픈채팅이 초기 청소년에게 단순한 위험 공간이 아닌, 관계 맺기, 자기 표현, 위험 조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의 장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기술 환경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디지털 경계와 윤리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주체였다. 따라서 보호 중심 접근을 넘어, 이들의 의미 구성과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는 정책·교육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경험을 반영한 디지털 시민 교육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들은 채팅방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입장을 결정하고, 프로필이나 말투를 유동적으로 조정하며 상호작용의 방식을 스스로 설계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에게 채팅이 단순한 소통을 넘어 정체성 탐색, 관계 조정, 주체적 판단이 결합된 복합적 디지털 실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은 디지털 시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온라인 예절이나 정보 윤리 등 규범 중심의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김세진, 2024). 이는 초기 청소년의 실제 디지털 경험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 감정 조절, 자기 표현 등의 역량을 포함한 경험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된다.

둘째, 참여자들은 플랫폼 내에서 또래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규칙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부모의 통제에 대해 수용·우회·협상 등의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디지털 규범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사용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여전히 연령 제한이나 차단 중심의 보호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 이들의 복합적 실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율적 실천을 음지화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표현 방식과 상호작용 문화를 반영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플랫폼 규칙과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기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위험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조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채팅방 이탈, 자기노출 조절, 사용자 신고 등의 전략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플랫폼의 작동 원리와 상호작용 규칙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판단이었다. 따라서 플랫폼은 단순 차단 기능을 넘어, 위험 인식과 자율적 대응을 돕는 기능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알림 기능이나, 채팅방의 성격과 규모를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조, 실제 대응 사례를 안내하는 가이드 등은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판단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신뢰 기반 소통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본인 인증을 통한 또래 중심 채팅방 입장 기능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청소년 사용자들이 직접 피드백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인천 지역의 6명 학생을 중심으로 현상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또한 일부 반복 참여자의 존재, 실제 채팅 로그의 부재는 해석의 편향 가능성을 수반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배경의 표본 확대, 채팅 로그와의 병행 분석, 연령·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초기 청소년의 디지털 실천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교육 및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5.04.30. 투고되었으며, 2025.05.18. 심사가 시작되어 2025.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대영(2024. 2. 10.), '내 딸 카톡에 성범죄자가'...아동 성착취로 병든 오픈채팅, 매일경제, 검색일자 2025. 4. 27.,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0303>.
- 김대영(2024. 5. 24.), 매일 1200만명 쓰는 알짜정보 맛집 '카톡 오픈채팅' 최대 위기, 한국경제, 검색일자 2025. 4. 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38700g>.
- 김세진(2024), 「초등학생의 온라인 채팅 경험과 인식에 관한 사례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아람·김아미(2020), 「디지털 네이티브의 일상을 통해 본 미디어와 학습: 중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8(2), 355-384.
- 남순현(2015), 「청소년의 성격, 애착, 온라인 자기개방, 가족친밀감과 온라인 친구관계의 질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1-32.
- 소수연·안지영·양대희·김경민(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부모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247-279.
- 우성범·권정혜·양은주(2014), 「청소년의 온라인·오프라인 공간의 친밀감 형성: 자기개방과 반응성 친밀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3), 111-125.
- 이다숨(2025. 3. 31.), 초등학생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 1만 명 돌파, 뉴시스, 검색일자 2025. 4. 2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31_0003120135.
- 이수봉·한상철(2018),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또래동조성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익명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5(2), 79-105.
- 이재영·김용근(2019),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루밍 성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과 학회지』 8(4), 241-249.
- 이정현(2024. 4. 30.), '평균 2.7개 오픈채팅방 참여...학업·재테크 정보 습득 목적', 연합뉴스, 검색일자 2025. 4. 27.,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9097400017>.
- 이현주(2025. 4. 19.), '미자' 달린 오픈채팅방에 노출된 아이들...1:1 대화의 늪[성착취, 아웃], 아시아경제, 검색일자 2025. 4. 27.,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0809082556917>.
- 이현주(2025. 4. 19.), '아이템 사준다길래' 게임하다 성착취 피해...상당기관 사칭까지 [성착취, 아웃], 아시아경제, 검색일자 2025. 4. 27.,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40816403264484>.
- 장근영·임지연(202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대한민국의청소년정책연구원.
- 채성오(2023.01.09.), 로블록스, 7만건 계정정지... '대리 구매' 말린 어린이 피해 속출, 블로터, 검색일자 2025. 6. 14.,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47242>.
- 한국언론진흥재단(2022),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2024』,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한정석(2023), 『디지털 성비행의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aym, N. K. (2010). *Personal connections in the digital age*. Cambridge: Polity Press.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llison, N. B., Blackwell, L., Lampe, C., & Trieu, P. (2016), The question exists, but you don't exist with it: Strategic anonymity in the social lives of adolescents, *Social Media + Society* 2(4), 1-12. <https://doi.org/10.1177/2056305116670673>.

Haq, E. -U., Jangra, S., De, S., Sastry, N., & Tyson, G. (2025), Unpacking the layers: Exploring self-disclosure norms, engagement dynamics, and privacy implications, In Companion proceedings of the ACM Web Conference 2025 (WWW Companion '25), New York, NY: ACM, 12.

Jenkins, H., Purushotma, R., Clinton, K., Weigel, M., & Robison, A. J. (2009),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Cambridge, MA: MIT Press.

Lapidot-Lefler, N., & Barak, A. (2012), Effects of anonymity, invisibility, and lack of eye-contact on toxic online disinhibi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2), 434-443. <https://doi.org/10.1016/j.chb.2011.10.014>.

Lomanowska, A. M., & Guitton, M. J. (2016), Online intimacy and well-being in the digital age, *Internet Interventions* 4, 138-144. <https://doi.org/10.1016/j.invent.2016.06.005>.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https://doi.org/10.1108/10748120110424816>.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S. W.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Chichester: Wiley.

초기 청소년의 오픈채팅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낯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김세진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11~13세)의 오픈채팅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낯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실천, 위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6인 대상 초점집단면담, 비참여 관찰, 사회 담론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오픈채팅을 관심사 기반 소통, 정보 탐색, 정서적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며, 전략적 자기개방과 공감적 반응을 통해 낯선 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의 관계는 정서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지되거나 단절되는 유동적 특성을 보였고, 다양한 위험을 인식하고 자기노출 조절, 채팅방 이탈, 신고 등의 전략을 수행하였다. 또한 부모의 통제와 사회 인식에 대해 수용, 우회, 협상하며 정서적으로 조율하는 양상도 드러났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을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닌, 자율적 실천 주체로 조명하며, 온라인 관계와 디지털 시민성 이해를 확장하고 교육·정책 대응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핵심어 오픈채팅, 카카오톡, 초기 청소년, 낯선 사람, 디지털 관계, 익명성, 온라인 친밀감, 위험 인식, 디지털 시민성

Qualitative Case Study on Early Adolescents’ Open-Chat Experiences

— Focusing on Relationship Formation with Strangers

Kim Sejin

This study qualitatively investigates early adolescents’ (ages 11–13) use of open-chat platforms, focusing on how they form relationships with strangers, engage in emotional practices, and perceive and respond to risk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six participants, non-participant observation of public chatrooms, and analysis of relevant social discourse.

The findings show that early adolescents use open-chat as a space for interest-based communication, information seeking, and emotional exchange. They develop intimacy with strangers through strategic self-disclosure and empathetic responsiveness. These relationships are fluid, maintained or dissolved depending on emotional needs and situational contexts. Participants also recognize a range of risks and employ coping strategies such as adjusting their self-disclosure, exiting chatrooms, and using reporting tools. Furthermore, they respond to parental control and societal perceptions through acceptance, evasion, and negotiation, often engaging in emotional regulation.

This study reframes early adolescents as autonomous agents of digital practice instead of passive recipients of protection. It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online intimacy and digital citizenship, as well as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into educational and policy responses.

KEYWORDS open-chat, early adolescents, strangers, digital relationships, anonymity, online intimacy, risk perception, digital citizenship